

# 백세시대 대응 국민인식과 정책적 함의

*Living to One Hundred: Policy Implications of What Koreans Think About Living Longer*



오영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본고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사회쟁점과 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실시된 「인생 백세시대 대비 국민인식조사」의 결과이다. 조사표본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역·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추출법에 의하여 30~69세 남녀 1,000명을 표본추출 하였다. 전화조사는 2011년 6월 1일부터 8일까지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실시되었고, 조사내용은 평균수명 연장에 대한 국민인식 및 가치관, 평균수명 연장시대의 노후 가족 및 사회관계 변화, 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60세 이후 근로 의향,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인지,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1. 들어가는 말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최빈사망연령이 상승하여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sup>1)</sup>.

「인생 백세시대」의 도래는 우리사회의 각 부문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이며, 이는 노년기의 연장에 따른 고령사회 대응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 길어진 노후”는 삶의 생활방식과 근로방식의 재편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사회와 국가 차원의 제도 개

혁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인생에 대한 재설계를 필요로 할 것이다.

본 조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사회쟁점 및 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내용은 평균수명 연장에 대한 국민인식 및 가치관,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가족 및 사회관계의 변화, 본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태도 등 「인생 백세시대」 대응을 위한 국민의식 및 욕구를 파악하였다.

조사 표본은 2011년 주민등록인구를 토대로 지역,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할당추출법에 의하

1) 전홍택 외(2011)의 연구에서 최빈사망연령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최빈사망연령은 1983년 71세에서 2008년 85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현재 추이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경우 한국인의 최빈사망연령은 2020년까지는 90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음(「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여 전국 30~69세 남녀 1,000명을 표본추출 하였다. 전화조사는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8일 까지 실시되었으며,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전문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표 1. 조사의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 16개 시·도 30~69세 남·녀
조사기간	2011. 06. 01 ~ 2011. 06. 08
표본크기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 / 성별 / 연령별 인구비례할당추출법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사용한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0%p

## 2. 평균수명 연장에 대한 국민인식

### 1) 평균수명 연장에 대한 국민 의견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90세 이상 또는 100세까지 사는 현상을 축복이라는

의견은 28.7%, 그저그렇다(보통이다)는 28.0%, 축복이 아니라는 응답은 43.3%였다. 즉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평균수명 연장에 대해 중립적인 가치를 보이거나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았다.

평균수명 연장이 축복이라는 의견은 40대 연령층이 3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대 연령층이 30.7%, 50대 25.1%, 60대 21.3%였다. 보통이라는 중립적인 의견은 젊은 연령층일수록 높았고, 축복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의견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았다. 따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수명 연장에 대해 축복이라는 긍정적인 인식과 중립적인 인식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이는 현 연령별로 체험하는 삶의 질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한편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사람들이 90세 이상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이 3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노인문제 즉 빈곤, 질병, 소외·고독감 등의 발

**표 2. 평균수명 연장을 축복이라는 인식**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chi^2$ -test
전체	8.7	20.0	28.0	35.4	7.9	100.0 (1,000)	48.126***
30대	8.2	22.5	36.5	26.6	6.1	100.0 ( 293)	
40대	10.7	22.7	28.9	31.5	6.2	100.0 ( 308)	
50대	7.5	17.6	22.2	41.8	10.9	100.0 ( 239)	
60대	7.5	13.8	19.4	49.4	10.0	100.0 ( 160)	

주: 1) '100세까지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 내용임.

2) \* p<0.05, \*\* p<0.01, \*\*\* p<0.001

생 때문이 30.6%로 많았으며, 자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도 24.1%로 많은 편이었다. 이외에 국가와 사회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4.2%), 기타(2.8%)라는 이유로 응답하였다.

## 2)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국민의 희망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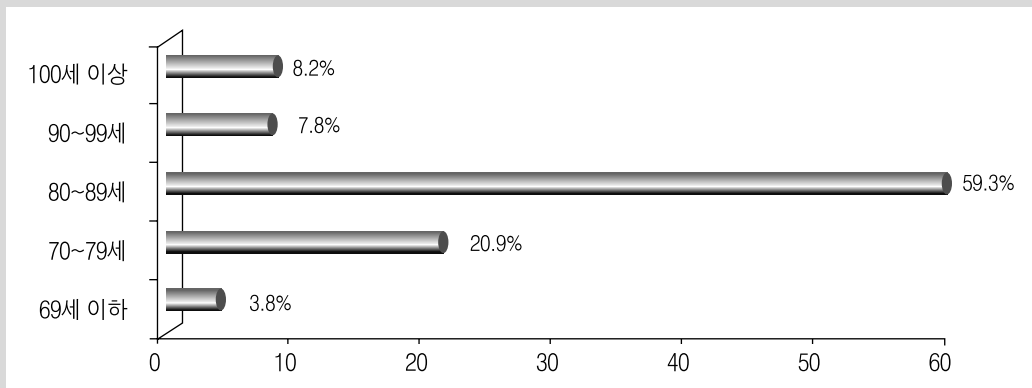
국민이 희망하는 수명은 80~89세가 59.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70~79세가 20.9%, 100세 이상은 8.2%, 90~99세는 7.8%로 나타났다<sup>2)</sup>. 이는 국민의 약 80%가 희망하는 수명이 70대, 80대 연령층에 집중되어 「인생 80세 시대」의 인식에 머무르는 반면, 희망수명 90세 이상을 응답한 국민은 16.0%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백세시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3)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바람직한 은퇴시기

현 사회는 평균수명 80세 시대를 기준으로 제도 시스템이 맞추어져 경제활동의 은퇴시기도 4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정형화 되어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 90세 진입을 앞두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전반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은퇴시기는 연령에 관계없이 건강할 때까지가 3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65~69세가 31.5%, 60~64세 25.0% 순으로 많았다. 즉, 인생 백세시대에 국민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은퇴시기는 연령과 상관없이 건강이 허용하는 범위 내와 65~69세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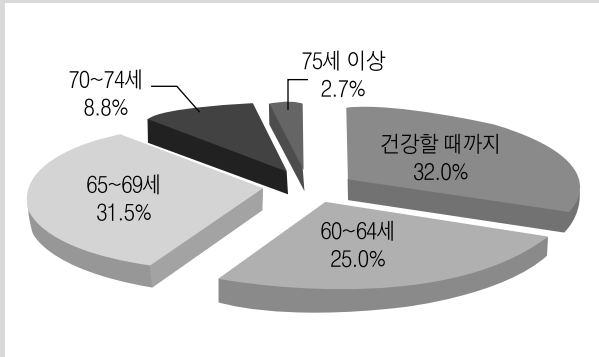
그림 1.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국민의 희망 수명



주: 무응답자를 제외한 99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0년 현재 79.6세(남자 76.1세, 여자 82.9세)이고, 점차 높아져 2030년 83.1세(남자 79.8세, 여자 86.3세), 2050년 86.0세(남자 82.9세, 여자 88.9세)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6.11).

그림 2.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바람직한 은퇴시기



주: 1,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가장 중요한 가족자원으로 생각하는 대상은 배우자가 8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가 12.6%, 형제자매 1.3% 등이었다.

연령별 노후에 중요한 가족자원으로는 40대와 50대 연령층은 배우자라는 응답이 각각 88.9%와 85.9%로 높았고, 30대와 60대 연령층은 자녀라는 응답이 각각 16.9%와 15.5%로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3. 평균수명 연장시대의 노후에 가족관계 변화 태도

#### 1) 평균수명 연장시대의 노후에 중요한 가족자원

사회적 지지 자원은 가족과 가족 이외에 이웃, 친구, 직장동료 등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가족의 삶에 양적·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노후에

#### 2) 노후에 중요한 가족 이외의 자원

국민이 평균수명이 길어진 노후에 가장 중요한 가족 이외의 자원으로는 친구가 68.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지역사회 주민이 22.6%이었으며, 이외에 (이전) 직장동료가 2.9%, 동호회 회원 2.4%, 기타 1.5% 등 이었다. 따라서 향후 백세시대에 국민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족 이외의 자원으로는 친구가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고, 이웃주민을 의존하는 비율도 높아서 떨어져 있

표 3. 평균수명 연장시대인 노후에 중요한 가족

(단위: 명, %)

구분	배우자	자녀	형제 / 자매	손자녀	없음	계 (명)
전체	84.3	12.6	1.3	0.2	1.5	100.0 (926)
30대	78.0	16.9	2.0	0.8	2.4	100.0 (254)
40대	88.9	8.1	1.7	-	1.3	100.0 (297)
50대	85.9	11.9	0.9	-	1.3	100.0 (227)
60대	83.8	15.5	-	-	0.7	100.0 (148)

주: 1)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9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무응답자를 제외함.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는 형제·자매 등 친척보다 이웃에 대한 가치가 높음을 엿볼 수 있다.

### 3)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노년기 부부관계 변화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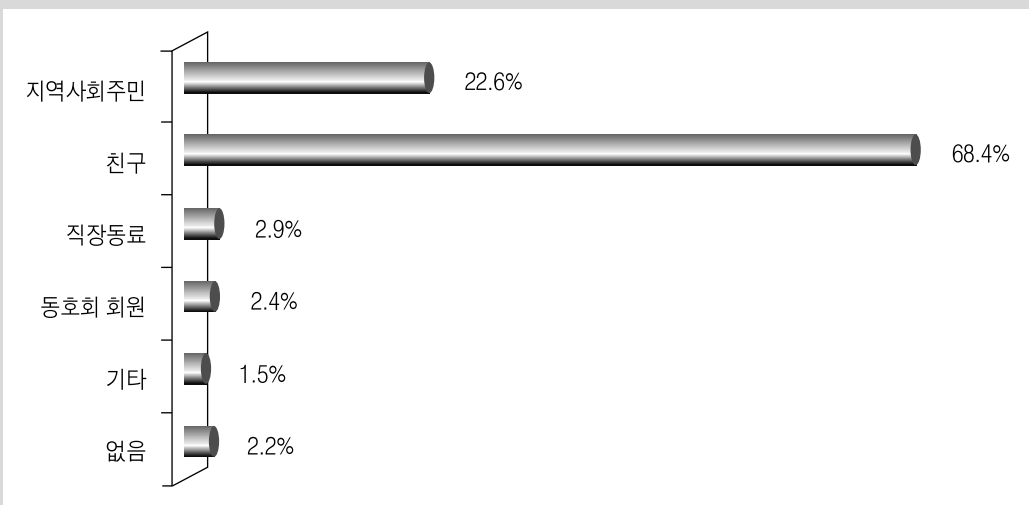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부부생활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길어진 노년기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노후의 생활양식 및 부양과도 관련이 높으므로 중요하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노년기에 배우자와의 관계는 매우 좋아질 것이다가 11.3%, 좋아질 것이다 42.2%로 긍정적인 관계변화는 53.5%가 응답하였고, 보통이라는 중립적인 의견은 42.8%, 나빠질 것이다 3.4%, 매우 나빠질 것이다는 0.4%로 부정적인 관계변화는 3.8%에 불과하여, 부부관계의 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연장된 노년기에 부부관계가 좋게 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연장된 노년기에 부부관계가 보통일 것이라는 중립적인 의견과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여서 연령별 부부관계의 질이 다소 반영된 결과로 짐작된다.

### 4)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노후수발이 필요한 경우 희망하는 거주유형

평균수명이 연장되면 노년기가 길어지므로 노후에 건강이 나빠져서 타인의 도움(수발)이 필요한 시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노인의 거주방식은 노인건강과 부인부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3. 평균수명 연장시대인 노후에 중요한 가족이외 중요한 사람



주: 무응답자를 제외한 9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표 4.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보통이다	나쁠 것이다	매우 나쁠 것이다	계 (명)
전체	11.3	42.2	42.8	3.4	0.4	100.0 (799)
30대	14.8	45.7	38.9	0.6	0.0	100.0 (162)
40대	11.4	44.8	40.9	2.5	0.4	100.0 (281)
50대	10.8	40.5	44.1	3.6	0.9	100.0 (222)
60대	7.5	35.1	49.3	8.2	0.0	100.0 (134)

주: 1) 유배우자 80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무응답자는 제외함.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노후에 건강이 나빠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희망하는 거주유형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 등에 입소를 희망하는 비율이 4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배우자 또는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38.4%, 전문직업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싶다는 10.9% 순으로 많았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3.1%로 상당히 미미하였다. 따라서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노후수발이 필요한 경우 희

망하는 주거방식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희망하는 욕구가 과반수 이상이었고, 배우자의 도움을 받거나 혼자서 해결한다는 의견도 3분의 1정도로 높았으나, 자녀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5.6%에 불과하여 자녀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 이용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 희망하는 주거유형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30대 연령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배우

표 5. 노후 수발이 필요한 경우 희망하는 거주유형

(단위: 명, %)

구분	배우자와 또는 혼자 살고 싶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	떨어져 사는 자녀 도움 받으며 살고 싶다	전문 직업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싶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요양시설, 병원 등에 입소	기타	계 (명)
전체	38.4	3.1	2.5	10.9	44.5	0.7	100.0 (976)
30대	45.3	3.5	1.7	8.4	40.8	0.3	100.0 (287)
40대	34.7	2.3	1.7	12.5	48.5	0.3	100.0 (303)
50대	32.2	1.3	4.3	12.0	48.9	1.3	100.0 (233)
60대	42.5	6.5	2.6	10.5	36.6	1.3	100.0 (153)

주: 1)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 또는 혼자 살겠다는 비율이 높았고, 40대와 50대 연령층은 전문직업인의 도움 또는 전문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60대 연령층은 배우자 또는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과 자녀의 도움을 받겠다는 응답이 타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 4. 평균수명 연장시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태도

##### 1) 경제적 노후준비

평균수명의 연장은 후기 노년기가 길어진다 는 것을 의미하며 노년기 삶을 보다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본인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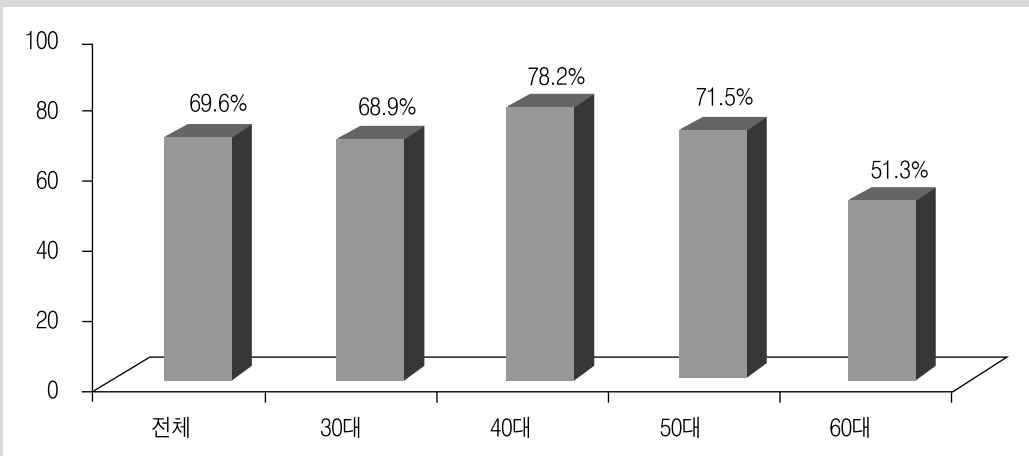
응답자의 69.6%는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78.2%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71.5%, 30대 68.9%, 60대 51.3% 등의 순으로 50대, 60대 연령층보다는 40대 연령층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본인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60.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일반저축 53.4%, 민간연금 44.9%, 부동산 40.8%, 주식 및 채권 23.4%, 기업퇴직연금 21.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금보다 평균수명이 더 길어진 「인생 백세시대」를 대응하여 어떤 종류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 강화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일반저축이 23.8%로 가장 높았고, 공적연금 19.5%, 민간연금 19.0%, 부동산 18.2%, 기업퇴직연금

그림 4. 현재 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율



주: 1,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9.7%, 주식/채권 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재 경제적 노후준비 뿐 아니라 향후 더 강화하려는 노후준비를 합하여 국민이 선호하는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을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경우 현재 준비율이 60.8%이고, 강화 준비율이 19.5%로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80.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일반저축(77.2%), 민간연금(63.9%), 부동산(59.0%), 주식/채권(32.9%), 기업퇴직연금(30.8%)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 2) 60세 이후 근로에 대한 태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후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60세 이후에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9.4%는 근로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55세를 정년제로 채택하고 있으나 60세 이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면 대부분 일 하기를 원하는 것을

집작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6.2%로 가장 높았고, 30대 81.2%, 40대 76.0%, 60대 72.5%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60세 이후에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국민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근로 유형을 질문한 결과, '이전 하던 일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일'에 대한 응답이 39.1%로 가장 높고, '이전에 못해본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일'이 30.0%, '이전일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일'이 28.3% 등이다. 이는 향후 취업재교육 또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의 확대 필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이전에 못해본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일이라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이 많을수록 이전 하던 일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일이라고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표 6. 국민이 선호하는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향후 선호하는 경제적 노후준비 <sup>1)</sup>			없음	계 (명)
	현재 노후준비	신규 강화 예정	소계		
공적연금	60.8	19.5	80.3	19.7	100.0 (1,000)
민간연금	44.9	19.0	63.9	36.1	100.0 (1,000)
기업퇴직연금	21.1	9.7	30.8	69.2	100.0 (1,000)
부동산	40.8	18.2	59.0	41.0	100.0 (1,000)
일반저축	53.4	23.8	77.2	22.8	100.0 (1,000)
주식/채권	23.4	9.5	32.9	67.1	100.0 (1,000)
기타	0.7	0.6	1.3	98.7	100.0 (1,000)

주: 1) 1,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향후 선호하는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은 현재 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방법별 응답률과 평균수명이 더 길어진다면 어떤 종류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강화하겠는가에 대한 응답률을 합한 수치임.



표 7. 60세 이후 근로 희망률 및 희망 근로유형

(단위: 명, %)

구분	60세 이후 근로 희망률 <sup>1)</sup>	희망하는 근로 유형 <sup>2)</sup>				계 (명)	$\chi^2$ -test
		이전일과 똑같은 기술	이전일과 유사한 기술	새로운 기술	기타		
전체	79.4	39.1	28.3	30.0	2.6	100.0 (777)	80.276***
30대	81.2	22.6	38.7	35.7	3.0	100.0 (230)	
40대	76.0	34.5	27.9	36.7	0.9	100.0 (229)	
50대	86.2	52.4	22.8	23.3	1.5	100.0 (206)	
60대	72.5	58.0	17.9	17.0	7.1	100.0 (112)	

주: 1) 1,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60세 이후 근로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7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 p&lt;0.05, \*\* p&lt;0.01, \*\*\* p&lt;0.001

### 3)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태도

흡연과 음주, 운동부족, 불균형적인 영양, 비만 등은 만성질환의 공통적 위험요인임을 많은 연구에서 입증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도 금연, 절주, 운동, 영양을 건강생활 실천 중점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건강생활에 대한 지식, 태도, 가치관은 개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개인의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더욱 길어진 노후에 건강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생활습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규칙적 운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1.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식생활 관리라는 응답이 87.7%, 정기적 건강검진은 80.7%, 금연은 59.2%, 절주는 58.5%, 건강보조제 복용은 3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대국민 홍보교육 및 보건소사업 등이 실시되어 규칙적 운동과 식생활관리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연과 절주에 대한 인식은 조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 4) 노년기 여가활동에 대한 태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활동은 주로 TV시청이나 휴식 중심의 소극적인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진다면 어떤 여가활동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본 결과,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는 비율이 4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19.7%, 친목활동 9.6%, 종교활동 및 신앙생활 8.3%, 학습 등 자기개발 활동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노후에 건강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생활습관 인지율(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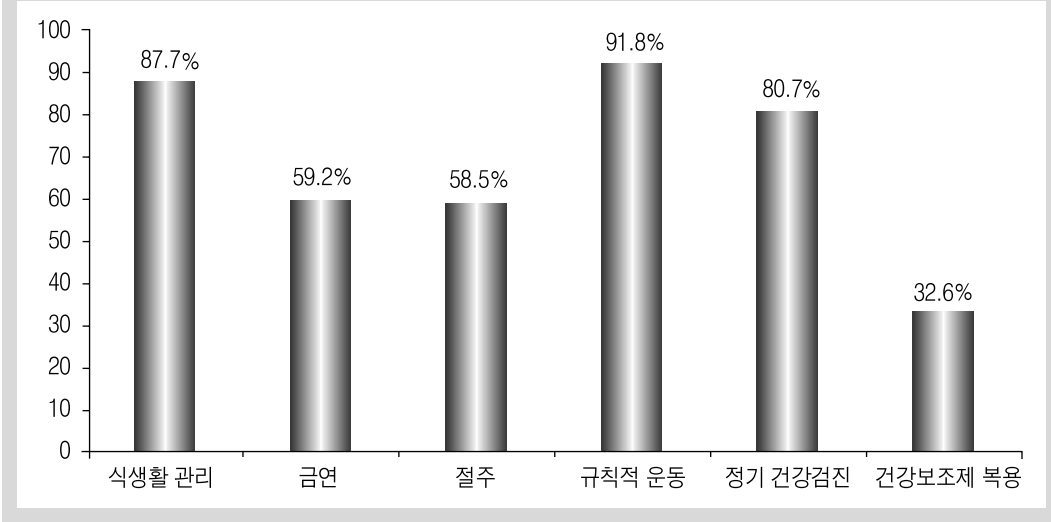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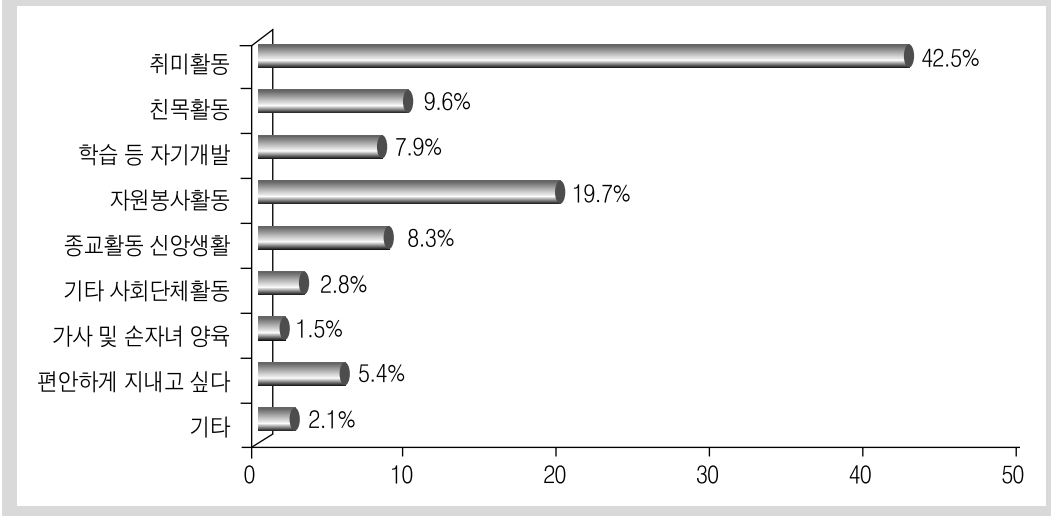


그림 6. 노년기 희망 여가활동



5) 노후준비 상담의 필요성

재무, 여가, 사회참여, 경력관리 등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노후설계컨설팅서비스 등)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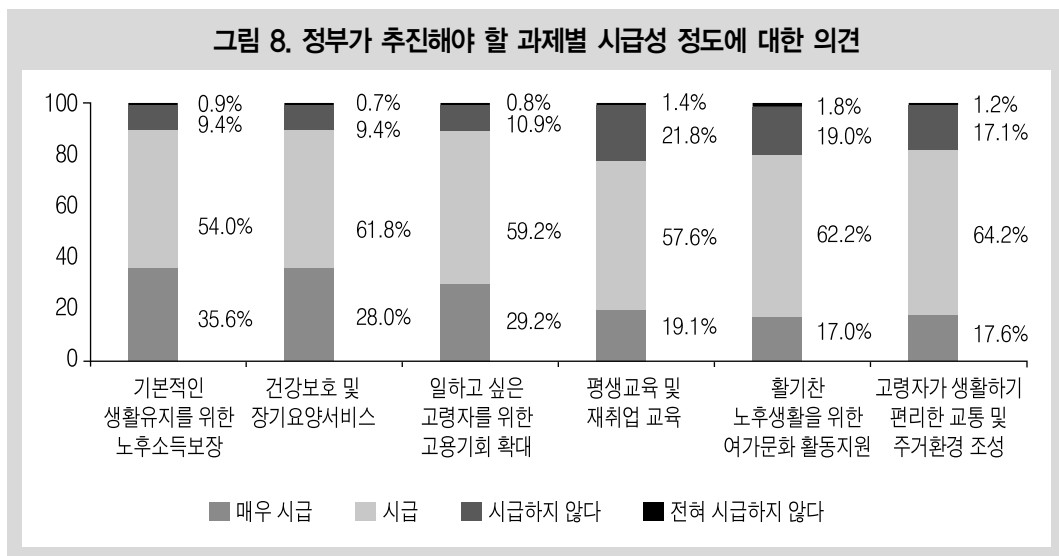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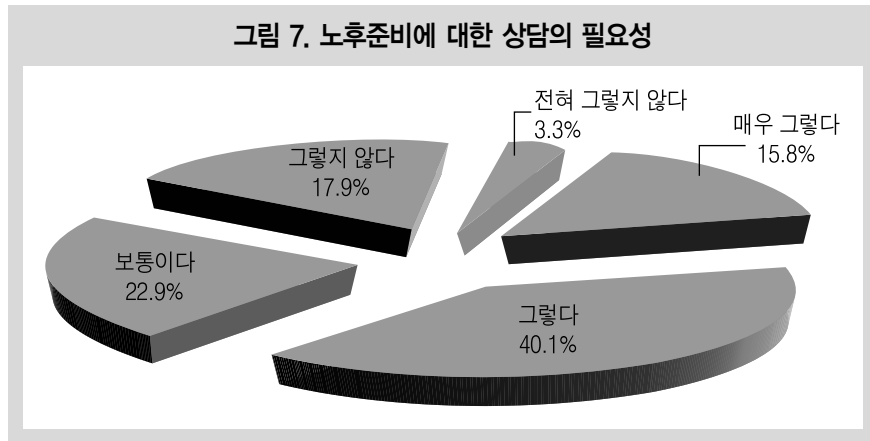
성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5.8%, 그렇다 40.1%, 보통이다 22.9%, 그렇지 않다 17.9%, 전혀 그렇지 않다 3.3% 등으로 전체 응답자의 55.9%는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을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인생 백세시대 대비 정책의 시급성에 대한 태도

「인생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의 시급성 정도에 대하여 질문

한 결과에서 ‘매우 시급하다’ 또는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건강 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가 89.8%로 가장 시급하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으로 89.6%, 일하고 싶은 고령자를 위한 고용기회 확대 88.4%, 고령자가 생활하기 편안한 교통 및 주거환경 조



성 81.8%,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문화활동 지원 79.2%, 평생 교육 및 재취업 교육 7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5.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

30~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생 100세 대응 국민인식」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대한 인식

첫째,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에 대해 축복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인식(43.3%)은 긍정적인 인식(28.7%)보다 더 높았고,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년기가 너무 길어지는 데서 발생하는 노인문제,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국민이 희망하는 수명은 70대와 80대 연령층에 집중되어 인생 80세 시대의 인식에 머무르는 반면, 희망수명으로 90세 이상을 응답한 국민은 16.0%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백세시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인생 백세시대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하여 그 체감도를 증진하고 정책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전반의 시스템 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연구와 욕구 발견에 근거한 정책적 모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국민이 바람직하

게 생각하는 은퇴시기는 연령과 상관없이 건강이 허용하는 범위 내(32.0%)와 65~69세(31.5%)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은퇴시기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여서 고연령층일수록 은퇴시기를 연장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은퇴제도가 노인의 일자리 욕구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의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백세시대에 맞는 새로운 은퇴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일환으로 은퇴연령의 연장 및 점진적 은퇴제도의 도입, 임금피크제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 2) 가족 및 사회관계의 변화

첫째, 향후 백세시대에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족자원으로 배우자(84.3%)가 자녀(12.6%)보다 약 7배 높아서 국민의 노후부양 가치관이 자녀에서 배우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이 생각하는 가족이외의 자원으로는 친구(68.4%)가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이웃주민(22.6%)을 의존하는 비율도 높아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친인척보다 친구·이웃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엿볼 수 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후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지지자원이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은 지금보다 배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의 사회적 지지층으로 함께 노화되는 배우자 및 친구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 노후보호기반의 불안정을 의미하므로, 향후 안정화된 노후 보호기반의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지지층 형성과 함께 고령친화적 지역

사회돌봄망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향후 백세시대에 국민이 생각하는 부부관계의 변화는 좋아질 것이라(53.5%)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빠질 것이라(3.8%)는 부정적인 의견보다 매우 높았고, 절반 정도가 보통(42.8%)이라는 중립적인 견해를 보여서 평균수명 연장 시대에 부부관계의 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부부관계의 변화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여 젊은 연령층은 부부관계 변화에 긍정적이거나 고연령층은 부부관계 변화에 조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관계가 사회경제적 환경과 밀접하며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층에서 부부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부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층으로서 노후에 안정적인 보호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노후수발 방식은 노인중심의 능동적인 형태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노후수발이 필요한 경우 희망하는 주거방식으로 전문적인 서비스(55.4%)와 배우자·혼자서 해결(38.4%)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으나, 자녀의 도움(5.6%)을 받으려는 의지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향후 백세시대 노후수발 방식은 기존의 자녀중심에서 전문직업인 또는 전문시설의 이용, 노인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후 수발방식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노후케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노후생활 준비

첫째,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준비율은 약 70%로 대체로 노후준비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계층별 차이를 보면 40대 준비율은 78.2%로 높은 수준인 반면 60대(51.3%)와 50대(71.5%)의 자각수준은 조금 부족하다. 따라서 더 길어진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노인세대 뿐 아니라 예비노인층에 대한 경제적 노후설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계층별 노후준비율의 차이는 노년기 삶의 질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다원화된 노후설계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55세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60세 이후 일하기를 원하는 응답이 약 8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연령층이 증가하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의 확립과 제도적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생활실천 의식에 대한 결과를 보면, 규칙적 운동(91.8%)과 식생활관리(87.7%), 정기적 건강검진(80.7%)에 대한 건강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지하고 있으나, 금연(59.2%)과 절주(58.5%)에 대해서는 인식수준이 다소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생활실천, 특히 금연 및 절주에 대한 건강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적극적 홍보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넷째, 노년기 여가 활동에 대하여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42.5%)는 비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자원봉사활동(19.7%)으로 응답하였다. 더욱 길어진 노년기에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따른 연령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여가는 장기간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 취미생활을 개발하고,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여가를 통하여 자기개발과 자기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